

2017. 5

Vol. 41

BIZart 비자트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HOT ISSUE

블랙컨슈머 대응, 분쟁해결기준 참조

BIZ REPORT II

中 상표권, 현지 대행기관 통해 출원

CEO INTERVIEW

서울산업진흥원 주형철 대표이사

주목 이 작가

자유의지, 반사의 미학-양경렬 작가

슈퍼 컬렉터

헤지펀드 업계 거물 스티브 코헨



양경렬 Stron wind scraped the sculpture away, Oil on paper, 36x48cm, 2016



Business

- | | |
|-------------------------|---------------------------|
| 03 HOT ISSUE - 법무 | 블랙컨슈머 대응, 분쟁해결기준 참조 |
| 07 BIZ REPORT I - 노무 | 대법 판결 앞둔 최대 근로시간 |
| 09 BIZ REPORT II - 지재권 | 中 상표권, 현지 대행기관 통해 출원 |
| 11 CEO INTERVIEW - 경영 | 서울산업진흥원 주형철 대표이사 |
| 14 FOCUS - 해외시장 | 넥스트차이나 '인도'에 주목하라 |
| 16 NEWS BRIEFING - 경제뉴스 | 원부자재 매입액 매출 80%면 직접생산 불인정 |

제호 BIZart 비자트

통권 Vol. 41

발행처 (주)에스엠비넷 (주)예술만세

발행일 2017. 5. 1

기획 중기이코노미, 키스갤러리

경제콘텐츠 손채운, 박현진, 채민선, 이가영
김성화, 박홍기

아트콘텐츠 김현성, 안진국, 이유미

디자인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주소 (137-87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5, 2층 201호
(서초동 고금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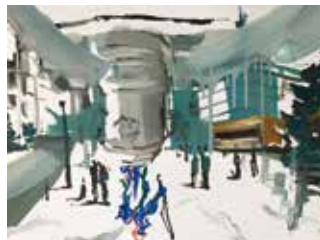
전화 02)525-7021 (주)에스엠비넷
02)745-0180 키스갤러리

팩스 02)6499-1391

월간 6,000원

등록 2013. 12. 11(등록번호 서초 라11599)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rt

- | | |
|-------------|-------------------------|
| 17 주목 이 작가 | 자유이지, 반사의 미학-양경렬 작가 |
| 22 슈퍼 컬렉터 | 헤지펀드 업계 거물 스티브 코헨 |
| 24 예술 별*방 | 올바른 '거짓말'하는 예스맨 |
| 26 관념미학 어워드 |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 |
| 28 한국화 읽기 | 인물의 일화를 담은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 |
| 30 예술가의 뮤즈 | 프랜시스 베이컨과 조지 다이어 |

김
로범 고우 고윤기 변호사
kohyg75@hanmail.net



블랙컨슈머 대응, 소비자원 분쟁해결기준 참조부터

매뉴얼 등 고객 클레임 대응 시스템 만들고, 관련 법 '꼭' 숙지

블랙컨슈머란 악성을 뜻하는 블랙(BLACK)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다. 악성 민원을 고의적·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라고 보면 된다.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서, 과거에는 기업의 허위 과장광고가 주로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소비자의 윤리문제로 중심이 옮겨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SNS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소비문화가 등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가 등장하면서 블랙컨슈머도 증가하고 있다.

고객이 상품을 구입한 후 상품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기업에 제기하는 것을 영어로 클레임(CLAIM)이라고 한다. 어떤 고객 이든, 자신이 구입한 상품에 대해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블랙컨슈머는 보통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클레임을 제기하고,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넘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사회적 파장을 키우고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등 공적기관을 이용하기도 해당 기업이 직접 해결하기를 요구한다. 고객응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이 블랙컨슈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휴대폰 '폭발' 사건과 P제과점 '쥐 식빵' 사건

블랙컨슈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두 사건이 있다. 하나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폭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쥐 식빵' 사건이다.

2010년 어느날, 인터넷 게시판에 삼성전자의 매직홀 폰이 충전 중 발화가 됐다는 글이 올라온다. 휴대폰 소유자는 인터넷에서 '휴대폰 환불남'으로 불리며,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1인 시위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리움 미술관, 에버랜드,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진행된다. 그리고 그 휴대폰 소유자는 본인의 1인 시위 과정을 그대로 인터넷 게시판에 매일 매일 올린다. 참다못한 삼성전자 측은 결국 그 사람을 고소했다.

수사과정에서 폭발했다는 휴대폰은 수거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가열한 것과 같은 상태"라는 의견을 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우선 자신의 집에는 전자레인지가 없다고 주장하던 휴대폰 소유자의 집에서 전자레인지가 발견된다. 그리고 휴대폰 소유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론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이 강압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다 결국 범행일체를 자백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시민단체들이 계속 시위하라고 부추겨서 했다고 변명을 하기까지 한다. 결국 법원에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실 이 징역 1년도 삼성전자 측에서 가해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이 참작된 것이다.

다음으로 '쥐 식빵' 사건이다. 2010년 12월23일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P제과 체인점에서 구입한 밤 식빵 속에서 구워진 쥐가 들어 있다는 사진이 올라왔다. 굉장히 혐오감이 드는 사진이었는데, 누가 봐도 빵이 구워지기 전에 쥐가 빵 반죽 속에 들어가 함께 구워진 것을 알 수 있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이 올라온 것은 2010년 12월23일 새벽 1시 경이었다. 2010년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를 기억하지 모르겠다. P제과는 2010년 가을부터 이 드라마를 통해, 자사의 빵을 홍보해왔다. 그런데 케이크 등 매출이 발생해야 할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이런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게 됐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됐고, P사는 실제로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P사의 대응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12월23일 오전 P제과회사 본사에서 상황반을 꾸리고 대외협력실, 홍보팀, 식품연구소를 포함한 회사 차원의 대응팀을 조직한다. 당일 오후 2시 긴급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밤 식빵 제조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빵 제조과정상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음을 언론에 확인시켰다. P사의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좋지 않았다.

12월25일에 P제과점 점포 내 CCTV에 찍힌 '쥐가 들어간 밤 식빵'의 구매자가 인근 경쟁사 점포 주인의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P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쥐 식빵 성분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12월29일 감정결과, 빵의 반죽 성분이 파리바게트의 반죽 성분이 아닌 T사의 반죽성분과 일치함이 밝혀졌다. 그리고 '쥐 식빵'의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자신의 자작극임을 실토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주일 동안의 드라마틱한 반전이였다.

두 사건 모두 우리나라에서 블랙컨슈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등장하는 일화다. 삼성전자와 P제과점 두 회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일이 커지는 것을 막았다.

고객 클레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블랙컨슈머는 처음부터 악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불만 고객이 회사의 응대에 불만을 가지고 블랙컨슈머로 진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고객의 클레임에 대응하는 방법 혹은 정해놓은 규정이 회사 내부적으로 없다면,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총 63가지의 분쟁해결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자신의 업종에 맞는 기준을 찾아서 사용하면 된다. 해당하는 업종이 없는 경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물론 이 기준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에 불과하고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공적기관에서 만든 합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과의 협상·재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가 있다. 예전에 소비자만족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이라고 부르던 것인데, 한국

소비자원이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으면 된다.

CCM인증을 받으면,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수준을 경감해주고,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권한을 부여한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시 가점 부여, 서울시 일 반응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그 외에도 회사의 보상처리기준을 만들고, 고객상담 매뉴얼을 제작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적절히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의 법무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소비자 관련 법률

소비자와 관련해, 기업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비자 기본법이다. 소비자 기본법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의무(결함정보의 보고의무)'가 규정돼 있다. 그 외에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조치(소비자기본법 제4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또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규정(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50조)이 있으니,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이 있다. PL법이라고도 부르는 데, 단 8개 조항만이 규정된 이 법률은 매우 강력하다.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면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①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②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 발견 불능 ③제조물의 결함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 ④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규정돼 있다. 면책사유 자체가 쉽게 증명하기 어렵게 규정이 되어, 회사가 져야 할 책임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최근에 삼성전자에서는 에어컨 설명서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세탁기에는 동물을 넣지 마세요', '알레르기 체질은 의사와 상담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세요' 등과 같은 문구를 넣었고, 대우일렉트로닉은 '김치냉장고에 학술자료를 보관하지 마세요', '전자레인지에 동물을 넣고 작동하지 마세요', '진공청소기 사용 중에는 손발 등을 흡입구에 넣지 마세요'와 같은 경고문을 넣었다. LG전자도 '휴대전화를 난로나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와 같은 경고 문구를 넣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황당해 보이는 이런 경고 문구는 제조사들이 제조물 책임법의 배상책임을 최대한 피해 보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이밖에도 기업의 법무담당자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행정규칙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정도만 잘 읽어 뒀도, 광고와 관련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다. 다음은 해당 고시에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몇 가지 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예〉

-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 대처분'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 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 '6/1일 ○○상품 10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한 후 100개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6/2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 실제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휘발유 1ℓ 로 ○○km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합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블랙컨슈머로 변신한 경우, 최후의 수단 '법적 대응'

고객이 단순히 까다로운 소비자가 아니라 블랙컨슈머로 변신할 경우,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것인데, 문제는 손해배상액의 입증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의 체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블랙컨슈머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내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블랙컨슈머에 대응한다. 대표적인 죄명이 공갈죄, 협박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사기죄다. 특히 과도한 돈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죄, 언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저하를 시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회사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경우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법무담당자라면 앞서 언급한 법 규정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BIZart**



글.
 노동OK 김성호 상담실장
 seekhoper@gmail.com



대법판결 앞둔 ‘1주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or 52시간’

정치권, 1주 52시간 초과 제한 개정안 합의…각론은 이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20일 1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에 대한 제정 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정안 처리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당사사가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는 1주당 12시간까지 인정된다.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하면,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이다.

현행 1주간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가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휴일근로 8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시간(12시간)에, 토·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 된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 A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각각 10시간 근무를 한 후 일요일 9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 총근로시간은 59시간이 된다(5일×10H)+(1일 9H)=59H).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에서 7시간을 초과했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범위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요일 9시간 근무 중 8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A가 근로한 59시간을 법적으로 구분해 보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 휴일근로시간 8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11시간이다. 이 경우 A가 받을 수 있는 할증임금은 5일간 연장근로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할증임금 50%,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할증임금 50% 그리고 일요일 연장근로 1시간은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여서 중복 할증에 따른 할증임금 100%다.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인 경우 중복 할증

이러한 가산임금 계산방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휴일근로 9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휴일근로 9시간 모두에 대해 연장 및 휴일근로 할증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5건의 유사 소송 중 4건은 고법에서 중복 적용을 인정했고, 나머지 1건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같이 중복 적용을 부정했다. 이들 5건의 소송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져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의 중복 적용을 인정한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곤과 긴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그 억제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1주란 역(曆)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해석인 점 ▲중복할증을 부정하는 견해는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따로 보호되므로,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로 분류돼 따로 보호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23410).

반대로 연장 및 휴일가산수당의 중복을 부정하는 판결의 법리는 1주의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규정에서 '1주간'의 해석을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한정해 해석한다. 따라서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1주의 12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708).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5건의 소송은 외관상으론 할증임금 중복 적용 여부를 다투는 임금청구소송이지만, 해당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1주간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으로 귀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지금과 동일하게 68시간으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16시간이 줄어들어 52시간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휴일근무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할증임금이 중복 적용돼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1주당 총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문제를 고려한다면 무조건 환영할 일도 아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교대제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중복 지급해야 하는데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생산성 하락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노사 모두 이견이 없다. 이런 이유로 법원 및 국회 또한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노사 양측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Bizart

글.
 중기이코노미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中 상표권, 현지 대행기관 통해야 출원 가능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면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심판 대응

의류기업 A사는 중국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인이 A사의 주력상표를 선점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률적인 대응도 검토했으나 승산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었다. 중국에서 상표는 '선출원주의' 즉 먼저 등록된 사람에게 상표의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결국 A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5만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주고 상표를 넘겨받았다. 상표를 선점당했다면, 그 상표를 다시 찾아오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만 1200여곳에 달한다. 한류확산과 한·중 FTA로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이 늘면서 상표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중국 내 상표출원 실적은 낮다. 2013년 기준 중국에 출원된 상표의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7위에 그쳤다. 중국이 한국의 제1수출국인 점을 감안하면 저조하다.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임자’...선출원주의의 中 상표권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국은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상표법상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문자, 도형, 영어자모, 숫자, 입체 영상표지, 색채조합, 소리 및 당해 요소의 조합이어야 한다. 현저한 특징이 있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하면 안된다. 상표등록인은 출원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 상표권의 가장 큰 특징은 선출원주의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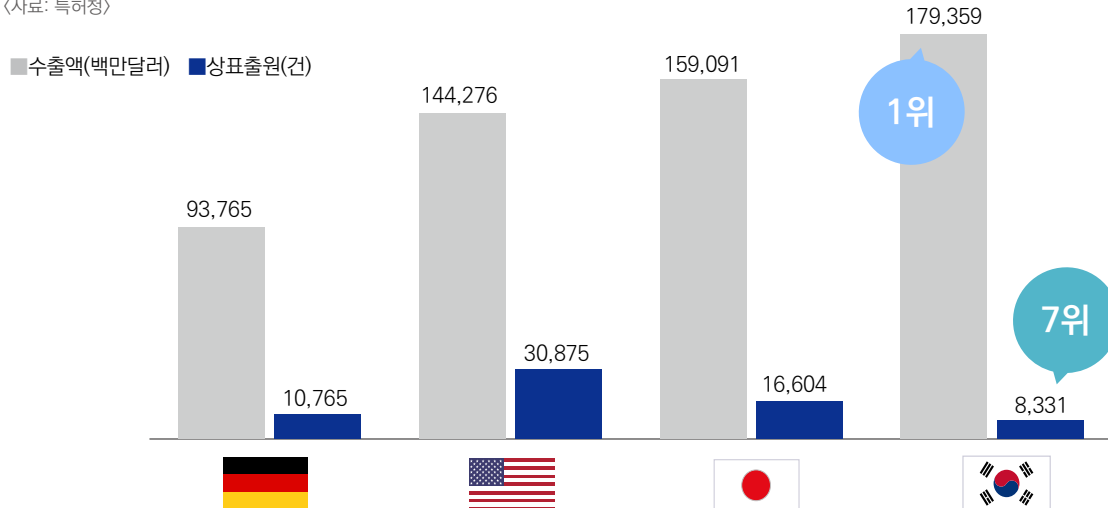
중국내 상표출원은 반드시 현지의 대행기관을 통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의 직접 상표출원은 불가하다. 상표 표장,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항목, 출원인의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출원인의 중문·영어 명칭과 주소, 출원 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합법적인 대행기관을 통해 상표국에 신청하면 된다. 출원인의 중문명과 주소는 반드시 한자여야 하고 영문+중문형태는 안된다. 출원인이 자연인일 경우 중문이름을 쓰면 되고, 법인일 경우 중문 명칭을 만들어야 한다. 상표당 1개 분류, 10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분류를 추가하는 경우, 품목이 10개를 초과하면 비용이 추가된다.

형식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3개월간 '상표공고'라는 관보에 공고된다. 이 기간 내 타인이 출원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표는 지정상품(서비스)에 등록되며, 상표 등록 후 상표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증이 발급되는 데까지 평균 1년 정도 걸린다.

관납료는 건당 600위안(한화 약 10만원)이며, 한번 등록하면 10년간 유지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면 기간만료 6개월 내 연장등록을 해야 한다.

對中 주요국 수출액 및 상표출원 현황(2013년기준)

(자료: 특허청)



침해 시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심판 통해 대응

선출원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은 필수다. 중국상표국이 제공하는 사이트(<http://sbj.saic.gov.cn/sbcx/>)에서 검색할 수 있다. 단 2개월내 출원정보는 검색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또 해당 사이트는 중국어와 영어만 제공하고 있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자사의 상표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공고중인 상표) ▲무효심판(등록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등록된 상표)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상표공고'에 공고중인 상표라면 공고기간(3개월)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 상표보다 앞서 중국에 상표를 등록해 둔 경우라면, 출원일이 앞서는 상표를 근거로 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출원일이 앞서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한다.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대리상 등을 통해 유통돼 상표가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라면 '저명상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상표는 상표 및 상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저명상표로 인정될 경우에는 비(非)유사상품영역에서도 상표 등록과 사용이 금지된다. 단, 중국에서 상표가 알려져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액, 광고비 지출액, 광고 사례, 지속기간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유명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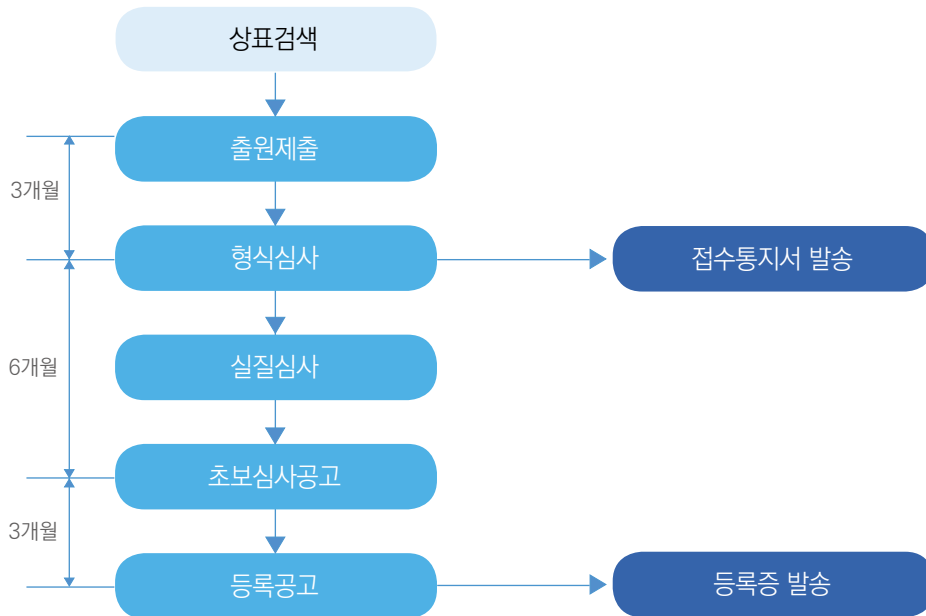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선점 상표의 출원일보다 기업의 상표 사용일이 앞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중국에서 인지도가 있으면 승소확률도 높다. 다만 제3자의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악의적인 상표 선점자의 경우 개인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록된 지 3년이 경과한 상표라면 불사용 취소심판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상표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전문가 도움을 얻어 무효심판, 이의신청 등의 법률대응을 할 수 있다. 또 대체상표 출원, 양도양수 협상전략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BIZart**

중국 상표의 출원절차

(자료: 특허청)



글.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1 _____ 서울산업진흥원(SBA) 주형철 대표이사(사진:중기이코노미)

“좋은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공정거래에서 나온다”

일자리, 창업, 中소육성 허브 ‘서울산업진흥원(SBA)’ 주형철 대표이사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서울의 전략산업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의 지향점을 보여주려 한다. SBA는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부터 R&D 지식재산권, 소기업 판로, 해외수출 그리고 문화콘텐츠, IT·IoT산업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임해서 이곳의 34가지 사업을 살펴보면 SBA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좋은 일자리’가 핵심이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곧 기업의 매출을 올리는 지원사업이 중심이 될 때 가능하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정거래문화 확산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SBA 주형철 대표이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사를 거쳐 2015년부터 SBA의 수장을 맡고 있다.

‘일자리본부’부터 만들고, 신직업 찾아 4차산업혁명 대비

주 대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자리본부를 만든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을 발굴해 좋은 인재와 좋은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 지난해 신직업 연구 발굴·교육·취업·창업으로 이뤄지는 신직업플랫폼을 구축한데 이어, 서울의 17개 대학과 공동으로 신직업 과정도 개설했다. 그 결과 지난해 7개 신직업군을 발굴해 7402명을 교육하고 1101명이 새 일자리를 찾았다. 올해는 ‘서울신직업인재센터’를 새로 설치해 SBA의 일자리 사업을 전문화·일원화했다.

“신직업이라고 하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신직업의 대다수는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고 분화융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령 IoT보안전문가는 기존의 보안전문가와 IoT전문가의 융합으로 탄생하죠. 또 데이터 디자이너는 빅데이터 분석전문가와 이를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직업입니다.”



2 서울 둔촌동 ‘서울유통센터’에서는 수시로 ‘유통교류회’가 열린다. 소기업과 유통업자들이 직접 만나 상품을 소개하고 판로를 제공한다.<사진:서울산업진흥원>

3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산업진흥원 <사진:서울산업진흥원>



준비 안된 창업은 반대...5월 서울창업허브 문 연다

SBA에서는 ‘준비 안 된 당신의 창업을 반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창업은 무엇보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성공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업을 꿈꾸는 도전적인 대학생 청년들은 우선 창업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자기 역량을 좀더 키운 이후에 창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BA는 창업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매칭시키고 있다. 준비된 창업자라면 SBA의 창업보육(Pre-BI)과 기업육성(Post-BI)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BA는 135개 엔젤·벤처투자기관들로부터 역량있는 창업팀을 추천받아 집중·육성한다. 지난해에는 이들과 함께 102개의 우수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민간투자자로부터 82억6000만원의 후속투자를 받기도 했다.

오는 5월에는 ‘서울창업허브’도 문을 연다. 서울 창업생태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서울창업허브에서는 서울의 모든 창업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SBA는 향후 3~4년 내에 매년 창업초기기업 600곳과 시리즈A단계 기업 100곳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투자 이외에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기관은 창업기업과 투자자가 신뢰를 기반으로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죠.”

정부가 산업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민간 중심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생태계중에서도 소셜벤처와 같이 일자리창출이나 공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고려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4 '하이서울우수상품어워드'는 우수한 제품을 SBA가 인증해 신뢰성을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사진:서울산업진흥원>



현장 밀착형 지원...“세금으로 지원하는만큼 환원 바람직”

중소기업 지원은 현장 밀착형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지난해 둔촌동에 문을 연 서울유통센터에서는 ‘유통교류회’가 수시로 열리는데, 중소기업과 유통업자가 직접 만나 상품을 소개하고 판로를 제공한다. 또 ‘하이서울우수상품어워드’는 우수한 제품을 SBA가 인증해, 신뢰성을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1156개의 제품이 하이서울우수브랜드 인증을 받았고, 올해는 5000여개의 인증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도 DMC, G밸리와 같은 11대 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공인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문화 조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단가후려치기를 통해 중소기업 연봉은 2000만원이하로 만들어놓고, 대기업은 4000만~5000만원의 임금을 챙겨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공정한 거래가 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산도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SBA는 규제기관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편에 서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SBA는 2025년 즈음 서울시 출연금 지원없이 재정자립을 할 계획이다. SBA 지원을 통해 성공을 한 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후배 기업에 돌려주도록 하는 선순환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구상이다. 우선 지난해 발굴해 지원한 102개 창업기업의 지분 1~3%를 확보했다. 또 유통지원을 받는 기업도 발생한 매출의 1% 내외로 일부를 기여하도록 약정을 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지원의 경우, 지원액 50%상당의 지분을 확보해 매출 및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해 SBA가 지원을 통해 발생한 선순환 수입은 총 249억원에 이른다.

“SBA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공공서비스는 무료가 아니고, 공공서비스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면 이를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편 주 대표는 지난해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무기계약직을 하나로 통합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용역계약이었던 청소경비시설 노동자 121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SBA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SB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좋아지고 경영성과도 높아집니다. 한 직장에서 받는 차별로 인해 조직원 사이에 갈등과 앙금이 있다면, 하나로 뭉쳐 목표를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BIZart

글.
 중기이코노미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차이나리스크 극복 ‘넥스트차이나’ 인도에 주목

연평균 7% 고속성장...韓 화장품, IT서비스, 의료관광 유망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가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을 추월하는 경제성장을 기록한데다, 거대 인구를 보유해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2014년 출범한 모디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향후 글로벌 제조허브로 자리잡을 전망이어서 새로운 투자처로 뜨고 있는 것이다.

젊고 강한 인구, 중산층 증가, 모디노믹스...고속 성장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0년까지만 해도 세계 12위 경제규모였던 인도는 2014년 이후 꾸준히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지난해에는 세계 7위에 올랐다. 글로벌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세계의 엔진’이라 불리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은 지도 오래다. 2012년 5.6%였던 인도의 실질 GDP성장률은 2015년 중국(6.9%)을 뛰어넘은 7.3%였고, 지난해에는 7.4%를 기록했다. 중국의 지난해 실질 GDP성장률은 6.5%에 그쳤다.

여러 국제기구와 경제관련 민간기관들은 2030년부터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대국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인도의 성장 배경에는 젊고 강한 인구, 중산층의 확대, 모디노믹스 등이 있다.

미국 CIA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인도인구는 13억3628만명이다. 중국(13억7354만명)에 이어 세계 2위다.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8억5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6.2%를 차지한다. 매년 600만명의 대학졸업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으로 신규유입되는 노동력은 500만에서 55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인력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다, 중산층의 증가로 사교육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어 향후 노동의 질은 더 향상될 전망이다. 양질의 인구가 풍부하나 임금은 저렴하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도시 근로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상 교육 받은 남성의 일평균 임금은 524루피(한화 약 9100원)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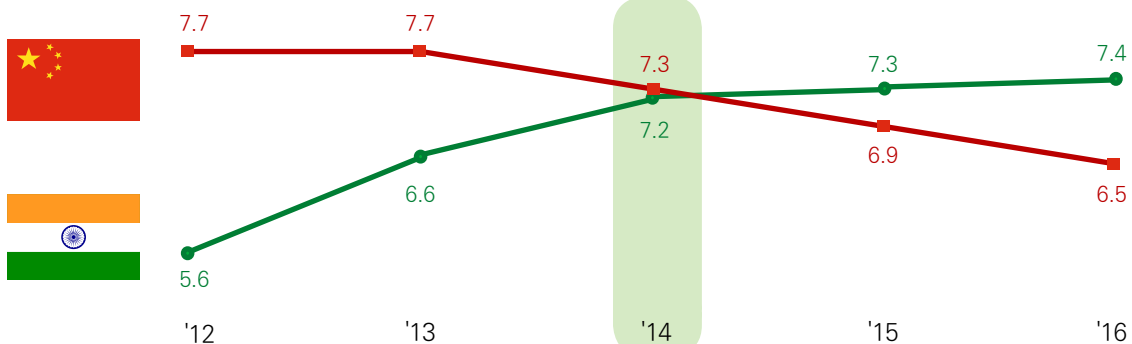
1인당 소득이 늘면서 중산층도 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소비시장이다. 2015년말 기준 인도의 1인당 명목 GDP는 1617달러에 지나지 않으나,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증가로 소비규모가 커지고 있다. 인도 응용경제연구원(NCAER)은 2010년 기준 가구당 소득 34만~170만루피(한화 약 600만원~3000만원) 구간을 중산층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3.1%로 추산된다. 2012년 1억6000만명이었던 중산층 인구는 2025년 5억4700만명(인구대비 3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2014년 취임한 모디 정부는 2025년까지 GDP대비 제조업 비중을 현재 15%에서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Make in India’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항공, 화학, 건설, 전자기기와 같은 25개 중점 유치분야를 지정하고 투자 인센티브 제공, FDI 상한 완화 및 철폐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어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이밖에 규제철폐, 행정절차 간소화, 전자정부 구축, 대규모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 도시간 산업연계, 스마트 시티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지리적 위치에 따라 아세안(ASEAN)과 아프리카와도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중국-인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코트라



‘VUCA’ 인도...韓기업 화장품, IT서비스, 의료관광 유망

인도가 매력적인 투자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국내기업에는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 오죽하면 ‘변동이 잦고(Volatile), 불확실하며(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하다(Ambiguous)’는 점에서 VUCA라는 별명도 있다. 2015년 포브스가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도 144개국 가운데 97위며, 세계은행의 사업용이성 평가에서도 189개국 중 130위다. 외국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법규, 미비하고 복잡한 제도, 느린 법적·행정적 처리 등의 요인 때문이다.

우리기업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는 화장품, IT 등이다. 특히 인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화장품 시장도 성장하고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인도상공인연합회(ASSOCHAM)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화장품 시장은 약 65억달러다. 2011년 이래 매년 10%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2025년에는 2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 뷰티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고, 제품수요 주요 계층인 젊은 인구가 많아 잠재력이 크다. 소득증가로 중산층이 늘어남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수요도 늘고 있다.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타깃별로 가격을 적절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IT는 인도의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에 인력과 인프라 확보가 용이하다. 제조업육성과 스마트시티 건설이 모디정부의 핵심정책이어서 이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우위를 갖춘 국내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수익이 보장되고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 의료관광, 에너지분야도 현재 시장은 크지 않지만,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남아시아팀 조총제 연구위원은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 된 가운데 인도는 넥스트차이나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진출을 지원하고, 민관공동진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BIZart**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SWOT

자료: 코트라

강점 Strength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주력상품의 경쟁력
우수한 소비자 품목 및 해외마케팅 노하우
정부의 인도시장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기회 Opportunity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친FDI
강력한 기업환경개선 의지
풍부한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시장
유통, 통신 인프라의 빠른 개선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영토 확대정책

약점 Weakness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품질 및 가격
중소기업의 독자진출 역량이 떨어짐
열악한 인프라, 생활환경

위협 Threat

인도정부의 수입규제 강화
인도의 낮은 정책 신뢰도와 복잡한 현지법체계
일본, 중국의 진출 확대에 인한 경쟁 격화

클.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junggi@junggi.co.kr

원부자재 매입액 매출 80%면 직접생산 불인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해당기업이 직접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 개정안을 보면, ▲특정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일괄구입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품 생산을 위해 원부자재를 매입한 금액이 해당 매출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인 받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직접생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자료: 중소기업청



- ▷ 특정업체로부터 원부자재 일괄구매해 제품 생산 시 직접생산 인정 안함
- ▷ 원부자재 매입금액 해당 매출 80% 초과시 직접생산 인정 안함
- ▷ 직접생산확인인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직접생산으로 인정
- ▷ 무상임차공장 직접생산시설로 인정 안함
- ▷ 현장사진으로 생산시설 확인할 경우 시설 가동 시연한 사진일 것
- ▷ 전기사용실적 기준은 월평균 5만원 이상

지방출장중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업무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호텔 등에 숙박을 할 수 있다. 이때 지출한 숙박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현행 행정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숙박비 지출액이 특정거래처의 접대용도로 지출했다면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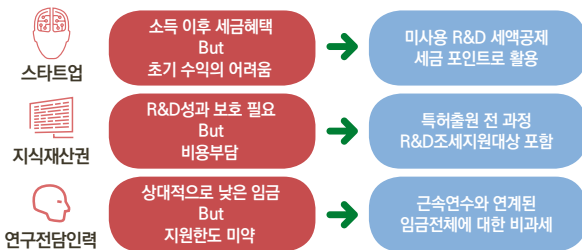
중견기업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다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가 지난 4월1일부터 중견기업으로 까지 확대됐다. 납부유예제도는 수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했다.

납부세금 없는데 세금 깎아주는 R&D 조세지원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제도가 있어도,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에 수익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공제를 해주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현실과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R&D 조세지원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소기업 맞춤형 R&D 조세지원 개선안 |



‘강하고 상세한’ 특허, 선행조사·청구범위 핵심

특허등록만 하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상세한’ 특허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선행기술조사와 청구범위지정이다.

러시아, 관세·부가세 없는 경제특구(SEZ) 진출

러시아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경제특구(SEZ)를 적극 활용하자.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보면 법률과 제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다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가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고, 서방의 경제제재에 맞서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 러시아 ‘일반지역-경제특구’ 비교 | 자료: ‘러시아 투자진출 세미나’ 자료집

	일반지역	경제특구
수익세(%)	20	0~15.5
재산세(%)	2.2	0
토지세(%)	1.5	0
교통세(EUR/마력)	0.1~3.5	0
사회보장세(%)	30	R&D인력 14 일반근로자 28
토지가격(%)	100(실거래가)	40~50(공시가)

베트남 진출기업 상사분쟁, 소송보단 중재 선택

베트남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이 매매계약 위반 등 상사분쟁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 의한 구제보다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베트남 법원의 소송절차와 비교해, 중재 절차와 시스템이 잘 정비되었고 또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어 전문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요되는 시간 역시 소송에 비해 훨씬 빠르다.

매출·이미지 ‘뚝’...랜섬웨어 피해 중소기업 절반

최근 ‘랜섬웨어(ransomware)’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에 침투,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파일을 암호화해 열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암호화된 파일은 암호키없이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파일이 복구된다는 보장도 없다.

앱 접근권한 동의안해 서비스 거부하면 과태료

앞으로 앱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정보와 설치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앱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간하고, 앱서비스 제공자가 앱사용자의 정보접근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이코노미(www.junggi.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키스갤러리 이유미 아트컨설턴트
kissgallery@naver.com



자유의지,
반사의 미학
양경렬 작가



2 _____ I just look over this wall, Oil on linen, 45x53cm, 2016

3 _____ in the street, Oil on linen, 162x112cm, 2013





4 daily life, Oil on line, 45X53cm, 2016

선택 또는 새로운 균형

김노암(미술평론가)

양경렬의 이미지는 전통적인 이미지의 상하관계를 와해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작품을 거꾸로 그려 독특한 세계를 만들었던 독일의 화가 게오르크 바젤리츠를 연상시킨다. 전형성과 관행을 뒤집어보고 해체하며 새로운 관점과 세계를 제시하는 예술의 미덕을 생각해보면 양경렬의 상하를 뒤집어보며 한 작품 속에 두 개의 세계를 담아내는 시도는 흥미롭다.

거울이미지가 아니면서도 위아래로 서로 바라보는 세계를 관객은 바라보며 위아래라는 관습적인 관념과 판단을 해체하며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생각하게 된다. 관객은 서로 어울리는 또는 기이한 관계 속의 풍경과 사건을 동시에 보면서 가상 속에 갇혀있다는 느낌과 함께 그림 이미지를 선택하게 된다.

사실 이미지를 위나 아래로 뒤집어 보는 것은 전통적인 세계와 사물의 재현으로서의 그림이미지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면의 이미지는 세계를 반영하면서도 세계 속 사건보다는 작가나 관객이 마주하는 그림이미지의 경험이라는 사건을 보다 강조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지의 환영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환영은 작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품과 함께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일상에서는 불가능한 신비처럼 세계와 세계가 위 아래로 접촉하며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초현실적 구성은 매우 전통적이면서도 예술이 현실과 만나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여제와 같은 사건과 일상은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이미지 또한 그러하다. 동일한 이미지도 다시 보면 다른 맥락과 시점에 놓여 우리의 의식에 변화를 준다. 무수한 사물과 이미지들 속에 갇혀 형성된 시각적 관습과 관념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생각보다 변화에 취약하다. 세상과 이미지는 급변하지만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하려한다. 그런 과정에 매 순간 판단하고 선택한다.

오늘날 현대 예술이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기 보다는 어떤 영감이나 자극을 제공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의 이미지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으로 이질적인 풍경과 사건을 하나의 화면에 구성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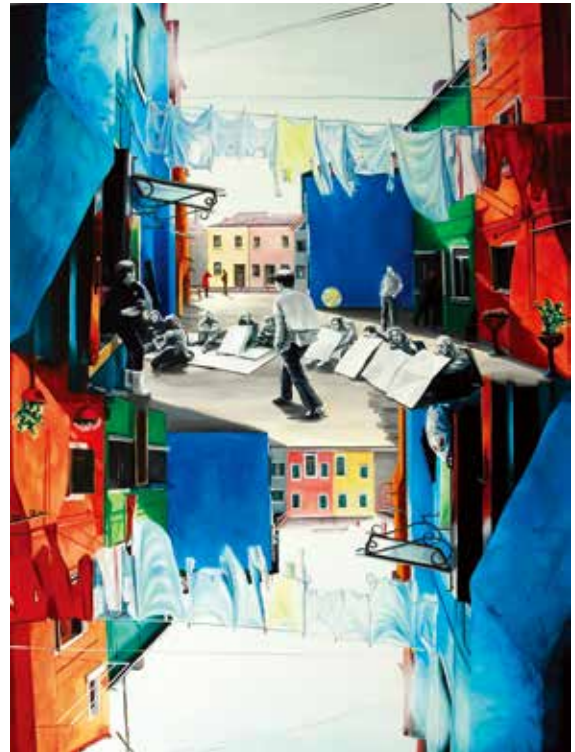


5 Self-Reflective Choice, Oil on linen, 227x182cm, 2013

반사란 무엇인가? 즉 단순히 물체가 비치는 물리적인 의미의 반사가 아닌, 우리의 관념 속에서 일어나는 반사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서 작업은 시작되었다.

작업의 배경은 다수가 모인 광장 그리고 우리가 구성한 세계와 가치가 크게 변화할 수 있었던 혁명이 일어났던 곳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거나, 일상 풍경이 된 곳을 배경으로 하여, 한 쪽엔 시위 현장이나 군중 또는 연극적 요소를 오버랩한 이미지들을 통해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과 반사, 그리고 또 다른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들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자유의지는 일정한 반응을 기계적으로 일으키는 현상들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인과적인 자연 물리법칙에 제한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고정되고 일방적인 단 하나의 세계는 없으며,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한한 자유의지를 충족하려는 방향성을 지니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을 한 후에는 언제나 선택하지 않은 방향에 있던 의지와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되고, 이는 결국 갈등과 고통의 요소로 작용한다.(작가노트중) **BIZart**



6 Free will, Oil on linen, 162x130cm, 2013(좌)

7 The laundry on the street, Oil on linen, 194x130cm, 2013(우)

양경렬 Kyung-Ryul Yang

- 2008 Hochschule fuer Angewandte Wissenschaften Hamburg (HAW Hamburg)
- 2007 InternationaleSemmerakademie fuer Kunst
- 2006 Hochschule fuer bildendeKunste Hamburg (HFBK)
Gaststudent (freieKunst)
- 2004 추계예술대학교 졸업

개인전

- 2016 조각풍경 / J갤러리 / 서울
- 2015 조각풍경 / Unit one 갤러리/ 베이징, 중국
- 2015 서울시 용산구 우산대로10길 88 / kiss gallery 서울
- 2014 선택 또는 새로운 균형 / 해인통 갤러리 여수
- 2014 piece : on the road / 아틀리에 터닝 서울
- 2013 Free will / 모아 갤러리 파주
- 2013 반사적 선택 / 아트 스페이스 휴 파주
- 2006 Alpha Eins gallery in Hamburg Germany "sehen" / 함부르크, 독일

그룹 및 기획 초대전

- 2016 제18회 광주 신세계 미술제 / 신세계갤러리 / 광주
- 심상의 풍경 / 갤러리 경 / 대구
- 낮선 이웃들 / 북서울미술관 / 서울
- 거기 낭만이 떠있다 / 아트팩토리 / 서울
- 바람 불어 좋은날 / GMA 광주 시립미술관 / 서울
- 서울 모던 아트쇼 / 예술의 전당 / 서울
- 10인전 / 갤러리 8 / 청주
- 2015 제1회 포트폴리오 박람회 수상 / 서울 예술 제단
- 기억의 속도 2014 / 아틀리에 터닝 서울
- Charity Bazaar / 스페이스 K 과천

- 2014 의정부 아트페스티벌 / 예술의 전당
Crossing the Border / MOA 갤러리 파주
REAL LANDSCAPE / 라마다 호텔 (2인전)
- 2013 Charity Bazaar / 스페이스 K 서울
드로잉 쓰고 또 쓰다 / 아트 스페이스 휴, 보림 갤러리 파주
Art road 77 / 한길갤러리 파주
being / 백자은갤러리 서울
- 2012 Charity Bazaar / 스페이스 K 서울
out of cocoon / 스페이스 K 과천
혐오와미망 / 나무갤러리 서울 (2인전)
C21 / 현대 미술 공간 서울
YM,WCA 회화의 힘 / 이마주갤러리 서울
대안공간-창작스튜디오 AR FESTIVAL / 아시아출판문화센터 파주출판도시
- 2010 Junk Art 전 Seoul / 예술미술관 서울
여수 국제아트 페스티벌 / 연 갤러리 여수
- 2009 Tango du chat / 서울
- 2007 20th PentimentAusstellung in HAW Hamburg Germany/ 독일 함부르크
- 2005 18th PentimentAusstellung in HAW Hamburg Germany/ 독일 함부르크
- 2004 Funny Sight Exhibition Seoul 을 갤러리 (재미있는 시각전) 서울
Open 전 Seoul / 광화문 갤러리 서울
breath 전 Seoul / 인데코 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 2011-2014 휴 네트워크 창작스튜디오
- 2015 B-space 레지던시 베이징/중국

수상

- 2015년, 제1회 포트폴리오 박람회 우수상 수상, 서울 예술 재단
- 2016년 제 18회 광주신세계 미술제 우수상

글.
김현성 아트브런치 대표
artmanse21@naver.com

헤지펀드 업계 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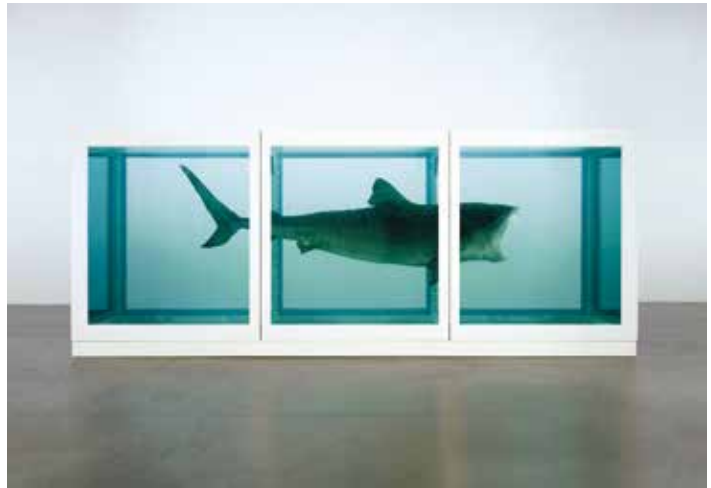
Steve A. Cohen 스티브 코헨

1 스티브 코헨 (출처www.kr.pinterest.com)

미국 헤지펀드 업계 거물로 잘 알려진 스티브 코헨(Steve A. Cohen). 그는 2002년 이후 세계 10대 아트컬렉터 목록에 이름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특히 1억 달러가 넘는 초고가 작품을 매입하는 몇 안 되는 큰 손 중 한명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는 데미언 허스트, 자코메티, 엔디워홀, 반 고흐, 잭슨 폴락, 에드바르트 몽크,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 등이 있다. 세계적인 금융재벌답게 웬만한 갑부들은 흉내조차 내기 힘든 몸놀림이다. 현재 코헨이 수집한 아트컬렉션의 가치는 10억 달러가 넘는다. 일반 컬렉터들이 대체로 자산 포트폴리오 중 약 5% 내외를 작품에 투자한다면 코헨은 그보다 훨씬 높은 비중(약 20% 정도)을 미술품 투자에 할애한다. 미술품이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 규제도 비교적 덜 받기 때문이다. 그는 소더비 경매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정도로 미술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헨을 비롯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예술작품을 하나의 금융 상품으로 보고 싹쓸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미술계 내외에서 말들이 많지만 세계 미술시장을 견인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술은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회사 건물 곳곳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는데,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재미가 있다”

아트컬렉션을 왜 하는지에 대한 코헨의 답변이다. 철저하게 투자와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예술작품이 사람들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더 격조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한다고 코헨은 믿는다. 그의 미술품 투자 방향이 유명작가에서 신인작가로 옮겨가고 있는 걸 봐도 알 수 있다.



2 데미언 허스트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출처 www.damienhirst.com)



3 스티브 코헨과 제프 쿤스 (출처 WideWalls)

스티브 코헨은 누구인가?

포커 플레이어, 주식 천재, 헤지펀드 킹, 의류 봉제공장의 아들.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다. 어린 시절부터 한번 본 숫자는 절대 잊지 않았던 코헨의 재능은 포커테이블에서 유감없이 드러난다. 타고난 그의 재능은 이익이 날지 여부를 매순간 판단하고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축복과도 같은 것이었다. 주식시세 전광판을 보면 직감적으로 어떤 회사가 상한가를 치고 나갈지 눈에 들어왔다고 고백할 정도니 그의 인생행로는 일찌감치 정해져 있어 보인다.

1992년 그는 2천만 달러로 SAC 캐피탈을 설립하고 20년 연속 3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며 역사상 가장 크고 성공적인 헤지펀드 설립자이자 월가의 영웅으로 등극한다. 그는 SAC의 엄청난 성공을 바탕으로 미술 컬렉션에 뛰어든다. 그의 이런 행보는 미술시장을 달구기에 충분했다. 2000년부터 미술품 수집을 시작해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억 달러 이상을 미술품 구매에 투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결국 가장 단기간에 '세계 슈퍼컬렉터'의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컬렉션의 시작은 반 고흐, 모네 등 인상파 화가의 작품들이었고 점차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현대미술작품들로 눈을 돌린다. 작품 제작 원가가 한화로 70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알려진 데미언 허스트의 포름알데히드에 절인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1991년 제작)이란 작품을 14년이 지난 2005년 800만 달러에 구입한 것은 미술계의 빅뉴스가 되기도 했다.

이 작품 매입과 관련해서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가 작품을 사려고 할 무렵 수조 안에 있던 상어가 부패하기 시작했고 작가인 데미언 허스트는 상어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 설치해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조차 코헨이 작품을 구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그밖에 잰스퍼 존스의 <깃발>은 1억1000만 달러에, 앤디 워홀의 <청록 마릴린>은 8000만 달러에, 윌렘 데쿠닝의 여성3(Woman3)을 1억7000만 달러에 그리고 제프 쿤스를 비롯한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급하고 매입했다. 컬렉션에 뛰어든 이후 코헨의 행보는 늘 화제의 중심이었다. 현재 그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400여점이다. 미술관을 제외한 개인의 소장품으로는 세계 정상급 수준.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의하면 현재 개인 자산 운용회사 '포인트72'를 운영하고 있는 스티브 코헨의 자산은 130억 달러로 세계 30위권의 부호 반열에 올라있다고 한다.

아마도 코헨은 세계에서 '예술작품을 단지 부를 소비하는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부를 창조'하는 수단으로 가장 잘 활용한 사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BIZart**

글.
안진국
미술평론가, 종합인문주의 정치비평지 『말과활』 편집위원
critic.levahn@gmail.com

올바른 ‘거짓말’하는 예스맨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부터 우리나라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경찰에서 가짜뉴스를 단속 하기에 이르렀다. 가짜뉴스는 말 그대로 거짓으로 날조된 내용을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 뉴스이다. 그래서 풍자 뉴스나 모큐멘터리(mockumentary)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대부분 가짜 뉴스는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거나 실행된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가짜 뉴스 제작을 공익이나 사회적 발언을 위한 퍼포먼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예술 활동 그룹이 바로 ‘예스맨’이다. 이들은 가짜 뉴스를 만들고,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고, 명의를 도용하고, 사칭한다. 이들에게 당한(?) 언론과 기업, 인물은 BBC, 뉴욕 타임스, 세계무역기구(WTO), 다우 케미컬, 뉴올리언스, 맥도널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이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존재들이다.



1. 'Re:publica 2014'에서 발표 중인 예스맨, 2014. (출처: 위키피디아)

예스맨이 세상을 고친다

과연 세계적인 언론방송에 명의를 도용해서 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다시 말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마치 어떤 기업의 관계자인 것처럼 방송에 나와 그 기업의 입장을 발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곳도 공신력 높은 BBC 같은 곳에서? 전설로 남을 엄청난 사건이 2004년에 있었다. 바로 예스맨(The Yes Men)이 저지른 일이다.

1984년 12월 인도 보팔에서 미국의 다국적 화학 회사의 유해 물질을 유출되어 8,000여 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20만 명이 호흡기 장애, 실명 등 질병에 시달리는 사건이 있었다. 일명 ‘보팔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 발생 20주년을 맞아 2004년 12월 3일 BBC는 황금시간대에 가해그룹인 다우 케미컬의 대변인 ‘जूड 피니스테라’와 인터뷰를 했다. 생방송이었다. 이 대변인은 방송에서 보팔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중대 발표를 했다. 바로 그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였다. 그런데 방송에 나온 다우 케미컬 대변인 ‘जूड 피니스테라’는 진짜가 아니었다. 예스맨의 앤디 비클라움 이 대변인으로 위장해 가짜 인터뷰를 한 것이다. 당연히 두 시간 뒤, 회사 측은 반발하며 자신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만 책임지겠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이 일로 다우기업의 주가는 3.4% 하락했다. 약 2조 4천억 원 정도가 공중 분해된 것이다. 바로 예스맨이 국제 자본 권력에 대항하여 저지른 대표적 행동주의 퍼포먼스다.

예스맨은 ‘예스맨이 세상을 고친다(The Yes Men Fix The World)’라는 구호 아래 앤디 비클라움(본명 자크 세르빈)과 마이크 버나노(또는 이고르 바모스)가 만든 퍼포먼스 그룹이다. 그들은 200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주로 그들은 유명 기관이나 기업의 명의를 도용하여 행동주의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그들이 유명해진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유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곳을 진짜 WTO 사이트로 착각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 가짜 사이트를 보고 진짜로 착각하여 보내온 메일을 받아, 예스맨은 WTO 관계자처럼 행사했다. 그들에게 보내온 초청 메일을 받고 예스맨은 WTO 관계자인 것처럼 세계 각지의 주요 경제 콘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러한 해프닝으로 그들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를 사칭하기도 했다. 그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지나간 뉴올리언스 시(市)를 재개발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발하여 미국주택도시개발청(HUD) 관계자로 위장해 공식 석상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내쫓긴 시민들과 습지대 보수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발표였다. 그런가 하면, GWBush.com이란 웹사이트를 개설해 자신을 생태 주지사이며 교육대통령이라고 미화시킨 ‘조지 W.부시’의 거짓과 위선, 탐욕을 대대적으로 폭로하기도 했다.

명의로동이 아닌, 명의보정(Identity Correction)

예스맨의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건은 2006년에 ‘서바이버볼(The SurvivaBall)’이라는 황당무계한 생존용 장비를 시연하고 홍보한 사건이다. 미국 군수업체 핼리버튼 사에서 기상 이변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획기적 생존 장치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뿌렸다. 그리고 그것을 시연·홍보하기 위해 ‘서바이버볼’을 회의장에 들고 나왔다. 이 발표도, 보도자료도 모두 예스맨이 주도한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는 기사화되기도 했고, 보도자료를 보고 ‘서바이버볼’에 대한 문의가 핼리버튼사로 폭주했다. 회의장에서는 이 우스꽝스럽고 황당무계한 장치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모든 것이 예스맨이 꾸민 일이다.

예스맨은 자신들이 이름을 도둑질하는 ‘사칭’이나 ‘명의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명의보정(Identity Correction)’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의 대표라고 떠벌리며 이런저런 못된 짓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는 활동을 한다고 말한다. 못된 짓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실체를 밝혀 우리에게 그들의 본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바로잡는다(보정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스맨은 자신의 행동주의 퍼포먼스를 제 이름 찾아주기란 뜻의 ‘명의보정’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블랙코미디 같은 퍼포먼스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09년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종식을 선언한 가짜 뉴욕 타임스의 특별판을 뉴욕에서 뿌렸고, 미국 상공회의소 대변인으로 위장해 소동을 벌였다. 2011년에는 스마트폰 업계의 어두운 측면에 관한 게임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그들의 행동을 예술로 볼 수 있는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스타달은 예술이 ‘행복에의 약속’이라 했다. 예스맨이 보통 사람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활동을 예술의 범주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들의 더욱 유쾌한 반란을 기대해본다. **BIZart**



2 '서바이버볼' 설계도, 2006 (출처 : <http://halliburtoncontracts.com.yeslab.org>)



3 다우 케미컬 대변인인 것처럼 BBC 생방송에 출연한 예스맨의 엔디 비글라움, 2004 (출처:다큐멘터리(The Yes Men Fix the World) 캡처)



4 '서바이버볼'을 착용하고 시연·홍보하고 예스맨, 2006(출처:www.democracynow.org)



5 '서바이버볼'을 착용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예스맨, 2006(출처:@ SurvivaNet)



6 예스맨이 2009년에 뉴욕 시내에서 배포한 뉴욕타임스 특별판(2009.7.4.). 헤드라인에 이라크 전쟁 종식과 기후 변화와 경제적 평등에 대한 승리 등이 적혀 있다. (출처:<http://www.tacticalmediafiles.net>)

글.
김정휘 미술평론가, 관념미학어워드 집행위원장
himanyoman@naver.com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

[관념미학 어워드 선정기준]

관념미는 작가의 관의 독창성의 수준이 높거나 상식으로부터 진일보할수록 발생하는 지적인 특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관념미의 발현경로는 조형이론, 표현수단, 표현과정, 표현방식, 표현양식, 모티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창적 조형이론이 존재하거나 관념의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있는 경우(최상)
2. 표현수단, 표현과정, 표현방식, 표현양식, 모티프에서 뚜렷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상)
3. 타인의 양식에 기대어 있으나(특정인의 작품에 대한 연상작용이 강한 경우를 의미함) 2번에서 언급한 부문에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중)
4. 타인의 양식에 기대어 있으며 개성은 있으나 독창적 조형관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하)



1 박무효 작품

제45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박무효

경기도 하남시 거주, 추계예술대학교 재학 중

박무효 작가는 동화적 발상이 돋보이는 참신한 모티프로 뚜렷한 독창성을 확보,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45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임파스토의 두터운 마티에르가 하단의 물의 역동적인 흐름과 깊이를 자아내고 있으며 신호등이 물에 빠져 오작동을 일으키는 상황을 연출하고 조명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켜 포착한 것에서 하드에지의 명쾌한 윤곽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침방〉 그림에서 느껴볼 수 있는 유쾌함을 동시에 한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신호등이 물에 빠져 오작동을 일으킨 것은 그리 흔하지 않은 회화에서의 한 장면으로써 모티프에서 유니크한 조형관념을 확보하게 되었다.



2 Robbie rowlands 작품

제46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Robbie rowlands

멜버른 거주, Pratt institute, RMIT University 석사 과정

Robbie rowlands 작가는 전시공간의 바닥과 벽의 일부를 해체하는 참신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46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갤러리의 텅 빈 공간에 흔히 배경으로만 간주되던 바닥과 벽의 일부를 작품의 구성요소로 편입시켜 갤러리 실내가 하나의 설치미술로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고 있다.

일렬로 분리된 형태는 벽으로 향할수록 좀 더 작은 크기로 수렴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오브제로 기능하며 바닥에 나선형의 패턴으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고 벽과 바닥에 형성된 빈 공간에는 기하학적인 질서가 자리잡고 있다.



3 Louisa marajo 작품

제47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Louisa marajo

파리 거주, universite paris1-pantheon sorbonne에서 Arts plastiques 석사

Louisa marajo 작가는 종이와 오브제를 활용하여 설치에 대한 낮은 접근을 보여줌으로써 표현방식에서 고유성을 확보,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47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모노크롬의 조형관념 위에 기하학적 패턴과 비정형적 운동을 내포한 종이는 벽과 바닥에 느슨하게 걸친 채로 각각의 재료가 이동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산만함 속에서도 경쾌한 리듬을 실내공간에 조성하고 있고 종이와는 이질감을 드러내는 오브제의 배치는 설치의 구성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제48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Elena Damiani

코펜하겐 거주, 골드스미스 대학원

Elena Damiani 작가는 각력암으로 보이는 재료와 철 구조물을 활용하여 표현방식에서 뚜렷한 독창성을 확보,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48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기하학적인 견고한 철 구조물에는 각각의 독립된 구획이 나누어져있고 각력암으로 보이는 재료는 아래로 거꾸로 기울여지기도 하고 강화유리 내에서는 위로 향하는 상반된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듬어진 부분과 투박한 표면이 동시에 드러나는 암석의 물성과 철 구조물의 금속성이 서로 묘한 이질감을 드러내는 한편 하단부에 삽입된 구리의 온화한 색감이 금속성을 조화롭게 포용하며 미니멀리즘 특유의 무뚝뚝한 태도와 함께 이상블라주의 참신한 해석과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BIZart



4 Elena Damiani 작품

글.
오민수 작가 홍익대학교 동양화 박사 수료
dat1127@naver.com

인물의 일화를 담은 고사인물도 (故事人物圖)

인물화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선사시대부터 인물의 모습이 표현되기 시작하여 삼국시대에 이르면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보듯이 그림으로 적극적으로 그려졌다. 고려시대에는 초상화를 비롯한 일반 인물화만이 아니라 불교인물화가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고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로 계승되어 더욱 큰 진전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가 동양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 데에는 조상숭배 사상,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정확한 사실적 묘사와 내면세계의 진솔한 표출을 지향하는 전신사조(傳神寫照)가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화가 가장 다양하고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던 조선시대에는 비단 초상화만이 아니라 궁중의 각종 행사를 그린 의궤도와 기록화, 고사와 연관된 인물을 담은 고사인물화, 산수를 배경으로 인물을 표현한 산수인물화, 일상생활이나 행사와 연관된 인물들을 묘사한 풍속인물화, 도교와 불교 등 종교적 인물들을 수묵법으로 그린 도석인물화, 불교와 관련된 불보살 등의 인물을 먹과 농채로 묘사한 불교인물화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의 인물화가 발달하였다. 옛 그림에서 인물을 주로 그린 그림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다. 하나는 사진 대신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린 초상화이며, 다른 하나는 고사(高士)를 비롯한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사건을 그림 내용에 포함시켜 그린 고사인물도이다.



1. 겸재 정선 <행단고슬도> 화첩, 18세기, 비단에 채색 29.6×23.3cm, 왜관수도원

고사(故事)란 예전에 일어난 일 또는 그 일로 인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말한다. 예전에 일어난 일이란 단순한 옛 일이 아니라 교훈적 의미나 내용이 담겨 후세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고사인물화의 범위를 살펴보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인물의 행적을 들 수 있고 생활상이 포함된다. 주로 문학작품이나 고전경서에 등장하는 인물로 비역사적 인물도 회화의 대상이 된다. 또 고사의 전체 내용이나 한 부분을 시각적인 묘사를 통해 고사에 내포된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서사적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고사인물도는 중국과 공통된 문화권이란 인식 아래 중국의 조사나 일화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많이 있다. 한국의 역사나 유명 인물의 일화를 소재로 한 그림이 전혀 없지 않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대부분 중국의 역사와 인물의 문인들을 주제로 정해 고유 복식에 따라 그려져 한국의 고사인물화는 자칫 중국적인 그림이 될 수 있으나, 중국풍으로 치부하기보다 각 화제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



2 장승업 <고사세동도> 견본담채, 141.8x39.8cm, 1843년 호암미술관(좌)



3 장승업 <관아도> 족자비단에 수묵, 143.5x41cm, 호암미술관(우)

장승업과 겸재 정선도 즐겨 그려

조선시대 말기 대표화가 오인 장승업은 옛 성현의 재미있는 일화나 책에 담긴 이야기, 명시 등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다. 그의 관아도(觀鵞圖)는 “바위 위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고, 물에서 노는 한 쌍의 거위에 시의(詩意)를 얻는다”고 한 왕희지(王羲之)의 관아의 고사(故事)를 그린 것 같다.

사모관대를 갖춘 선비가 흐뭇한 표정으로 바위에 기대어 물가에서 노니는 거위를 바라보고 있고 더벅머리 동자도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조심스레 동행했다. 담묵과 담채가 어우러진 강가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극단적으로 휘고 굽은 바위 주름. 특이한 표정의 인물. 기괴한 바위너설을 어긋매겨 곱절시키면서 점경(點景)으로 처리한 구도법.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한데 어울려서 이 작품에 일종의 괴이한 분위기를 빚어내고 있다.

장승업의 다른 고사인물도인 고사세동도(高士洗桐圖)는 예찬일화를 담채와 담묵으로 은은하게 회화화한 것으로 왼편 아래쪽의 괴석 옆에 앉아 초연한 예찬은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으며, 이것과 서로 마주하고 있는 준열한 선으로 구성된 오동나무의 줄기와 흰 수건을 든 시동은 화면에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또한, 오동나무의 줄기는 뺨어 올라간 위쪽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채워 화면을 안정시키고 있다. 꼼꼼한 필치로 묘사된 인물상과 오동나무, 이에 선염된 군청, 녹색의 담채는 예찬의 깔끔한 성품을 암시한다.

진경산수로 유명한 겸재 정선 역시 고사인물도를 즐겨 그렸다. 그는 화가로 유명하지만, 당대 유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만큼 옛 선인들의 고사에 해박했으며 관심이 높았다. 겸재가 그린 역사적 인물은 참으로 다양하다. 그 중에 공자가 제자들과 경전을 읽고 음악을 즐긴다는 내용인 ‘행단고슬도(杏壇鼓瑟圖)’를 보면, 신록이 우거진 한적한 동산에 담청색과 담홍색의 심의(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었던 옷)를 정갈하게 갖춰 입은 문인들이 모였다. 하얀 수염을 드리운 노선비는 동파건(중국의 문인 소동파가 썼다고 전해지는 모자)을 쓰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고 웃으며 담소를 나누거나 아름다운 금의 운율을 즐긴다. 아름답리 나무 아래, 그리고 돌로 만든 석단 위에 모여서 학문의 진리와 자연속의 풍류를 공유하는 스승과 제자들을 그려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는 어떤 인물의 일화를 그림으로 그려 소통할 것인가?

글.
아트편집팀
artbrunch@naver.com

Francis Bacon & George Dyer

프랜시스 베이컨과 조지 다이어



1 프랜시스 베이컨 <다이어의 두상 습작 study for the head of dyer>(출처 christies.com)(좌)
2 베이컨과 조지 다이어(출처 christies.com)(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작가 중 한 명인 프랜시스 베이컨(Pierre Francis Bacon, 1909~92). 그의 뮤즈는 동성이었던 조지 다이어(George Dyer, 1934~1971)다. 둘은 1964년 집주인과 도둑 사이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당시 베이컨은 50대 중반이었고 다이어는 30살의 젊은이였다.

조지 다이어는 어릴 적부터 도둑질로 소년원을 드나들던 문제아였다. 베이컨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젊은이를 때론 보호자처럼 때론 연인처럼 보살폈다. 특히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늘 함께 동행하며 인생의 동반자로 여겼다. 방탕스러운 삶을 살며 마약에 빠져 살던 조지 다이어 또한 베이컨의 예술가로서의 자부심과 격정적인 태도에 자신의 인생을 내맡긴다.

그러나 자아도취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던 다이어는 결국 1971년 10월, 파리 그랑팔레에서 베이컨의 회고전이 열리기 전날 밤 함께 머물던 호텔방에서 자살을 하고 만다. 사인은 마약성 최면제 과다복용. 베이컨은 그를 잊지 못하고 검은 3부작(Black Triptych) 시리즈를 조지 다이어에 관한 헌정작으로 바친다.

베이컨은 다이어를 모델로 누드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초상화를 그렸다. 그 중 대표작은 1966~7년에 그린 <조지 다이어의 두상 연구>와 1969년 작업한 <조지 다이어에 대한 세 개의 습작>이 있다. 베이컨이 그린 다이어의 초상화는 대부분 크고 추상적인 멀티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베이컨은 어린 시절부터 천식을 앓았고, 학교를 다닌 것은 1924년부터 1926년까지의 고작 3년이 전부다. 16세 되던 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다. 그는 파리, 베를린 등을 떠돌아다니며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고 1944년에 그린 <십자가 아래 인물들을 위한 세 가지 습작>이란 작품으로 데뷔했다.

인간은 죽어가는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며 줄곧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선보였던 그는 비평가들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해야만 했다.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깃덩어리를 보며 나는 나의 생명을 다른 생명에게서 얻어왔다는 사실과 생명의 끔찍함에 대해 생각을 한다. 나는 도살장과 같은 이미지들로부터 창조적 영감을 얻는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정육점에 걸려있는 핏빛 고깃덩어리가 자신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일생 동안 인물화만 그린 것으로 유명한 베이컨. 그는 피카소나 앤디 워홀 같은 작가들에 비해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미술관과 컬렉터들에게 작품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세계 경매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추상과 구상 사이의 외출 타기”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던 그는 초상화를 대상과 똑같이 그리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결국 2013년에 표현주의 회화의 정수를 보여줬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라는 작품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사상 최고액인 1억4240만 달러(한화로 약 1500억원)를 기록하며 20세기 표현주의를 상징하는 작품이 되었다. **BIZart**